

2016年度 学校評価アンケート 教員自己評価

2017年3月6日

建国幼稚園

2016年度、建国幼稚園「学校評価アンケート」について、ご協力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アンケートの結果をもとに、今年度の重点目標に照らし、教員自己評価を行いました。ご参照ください。

(1) 民族的なもの … 自分の民族に親しむ心を育てる (アンケート No. 1)

園では、日常のあいさつや生活、また行事を通して、韓国の民族、文化に親しむ心を育てるよう心がけています。挨拶や生活用語でウリマル(韓国語)を使うことを基本に、朝の会や終わりの会での歌や手遊び、読み聞かせ、また保育の中でのクゴ(韓国語)の時間、舞踊の時間など安定した取り組みをしてきました。ここ1年半ほど、韓国から来ている子どもも増え日常生活の中での韓国語が随分増えているように感じます。保護者の皆様からも良い評価をしていただきました。物作り、描画、遊び、食生活の中でも、韓国文化につながる課題の研究をかさね、日本や世界の国々の文化とも合わせ、よりよい形で自分の民族に親しむ心を育てていきたいと思えます。

(2) 活動面 … 遊びを通して学び、生きる力を育てる (アンケート No. 2~7)

子ども達が園での活動、経験、体験、行事を楽しみ、達成感や充実感を得て、それらが成長につながっているということに関連する項目において高い評価をいただきました。

身近な自然に親しみ、野菜畑や、園内での飼育、栽培活動で命の大切さに気づき、いたわる心、慈しみ、協力する心を育てる活動は、これからも継続、発展させていきたいと思えます。また、今年度の目標、「年齢に応じた環境設定に力を入れる」ことで、発表会などの行事では、子どもたちの主体性を大切に「考え、話し合い、実行」できるように、助言、指導に努め、より積極的な活動を支援してきました。小学校との交流活動では、オリニチュッチェ(子ども祭り)にむけて民族遊びを教えてもらったり、お正月のあいさつや遊びを習ったり、年長のケナリ班をはじめ園児全体を対象に行いましたが、就学へのサポートも考慮し、更に充実した交流ができるよう、連携していきたいと思えます。より教育的な効果、配慮に長けた環境づくりをめざし、子ども達の興味関心が膨らみ、活動に広がりを持たせる努力を続けたいと思えます。

(3) 生活面 … 基本的な生活・食習慣を身につける。丈夫な体作りを通して健康への関心を育てる。

(アンケート No. 8~12)

園では「自らすすんで挨拶する」「着替え、整頓、排泄等、身の回りの事の自立」「食事のマナーや、好き嫌いをなくす」「健康で丈夫な体をつくる」など、生活面で良い習慣を身につけられるよう、家庭と連携して取り組んでいます。

年間を通して行うリズム運動や体操教室、外遊び、広い運動場を使つての運動など、丈夫な体づくりを目指す上でも、より充実した指導をめざします。特にリズム運動では一つひとつの動きの意味を再確認して指導していきたいと思ひます。

また、お友達、先生、大人の方々への挨拶が進んでできるよう指導したり、場面に応じた声かけをしたりしていますが、「自分から進んで挨拶する」ことについて、昨年より10%以上よい評価となり、日々の指導の大切さを実感すると共にこれからも家庭と連携しながら取り組んでいきたいと思ひます。

(4) 人権面 … 自尊感情を高め、人とかかわる力を育てる (アンケート No. 13~15)

「自尊感情を高め、人とかかわる力を育てる」事に関する項目ではどれも良い評価をいただきました。園では「自分を大切に思ひ」、「相手を思ひやる気持ちをもつ」ことを大切に考えています。先生方も「一人ひとりの子どもたちをよく理解し、子どもたちのよさや力を引き出す」ことを念頭に保育に取り組んでいます。

縦割り活動やグループ活動は、複数の仲間たちとかかわりを持ち、同年齢だけでなく異年齢の子どもたちとも関わる交流の場となっています。年上の子どもたちは小さい子どもたちを手伝ったり、助けたり、年少の子どもたちはお兄ちゃん、お姉ちゃんをお手本にしたり…たくさんの学びがあります。慈しみ、思ひやり、他と関わる力を育てるため、その有意性を踏まえ、さらに意義ある取り組みを研究していきたいと思ひます。

また、韓国語、日本語、英語の文化を知ることにより、多文化の中で共生できるよう支援したいと思ひます。

(5) 地域連携 … 地域に開かれた園づくり (アンケート No. 16~18)

教育方針、活動の様子や行事のお知らせなどの園からの情報発信について、「教育方針は年度のはじめにプリント」で、「行事の案内は通信やお知らせ」で、「活動の様子は行事ごとに通信やブログ」でお伝えし、ホームページの充実とブログでの発信の回数を増やすことに取り組み、今年度は、共有ノートやうさぎノートなど様々な情報手段を試してみましたが、アンケートの結果からは、まだまだ工夫、検討を重ねていく必要がありそうです。保護者の皆様のご意見、アイデアをいただきながらより良い形を模索したいと思ひます。

地域へは、住吉区の「すみちゃん子育てネット」などを通して、未就園児教室「ぴよんあり」の開催を発信し、子育て保育の支援活動が定着してきました。また、住吉区のボランティアのおじいちゃん、おばあちゃんに花の苗をいただいたり、1年に2回、読み聞かせをしていただいたりする機会を持つこともできました。来年度も地域との連携を保育活動に組み込み、開かれた幼稚園を目指したいと思ひます。

また新しい一年に向け、教員一同さらに研究・研鑽を積んでいきます。

保護者のみなさまのご理解・ご協力をよろしくお願ひします。

2016 년도 학교 평가 앙케이트 교원 자기 평가

2016년도 건국 유치원 「학교 평가 양케이트」에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케이트 결과를 금년도의 중점 목표에 반영하여 교원 자기 평가를 실시했으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민족적인 부분 ... 자신의 민족에 대해 친근한 마음을 기른다 (양케이트 No.1)

유치원에서는 일상의 인사나 생활, 행사를 통하여 한국 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즐기는 마음을 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사나 생활용어에서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아침 모임이나 종례 모임에서의 노래나 놀이, 구연동화와 더불어 보육 중의 국어(한국어) 시간, 무용시간 설정 등 정례화된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지난 1년 반 정도 한국에서 온 어린이도 늘고 일상 생활 속에서 한국어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보호자 여러분도 좋은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만들기, 그리기, 놀이, 식생활 속에서도 한국 문화로 이어지는 과제 연구를 거듭하여, 일본과 세계 각국의 문화도 함께 접하게 하면서 보다 나은 형태로 자신의 민족에 대한 친근함을 길러 가고자 합니다.

(2) 활동면 ... 놀이를 통해 배우며 살아가는 힘을 기른다 (양케이트 No.2~7)

유치원에서의 활동, 경험, 체험,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유치원 생활을 즐기고 달성감과 충실감을 얻으며, 그것이 성장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항목은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변의 자연과 친근해지도록 원내에서 사육이나 재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장과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을 돌보는 마음과 사랑, 협동심을 기르는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 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도 목표의 하나로서 「연령에 따른 환경 설정에도 힘을 쏟아」, 발표회 등의 행사에서는 아이들의 주체성을 소중히 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지도하는 데 힘을 써왔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초등학교와의 교류 활동은 어린이축제를 통해 민족 전통의 놀이를 배우고, 설날의 인사와 놀이를 배우는 등, 가장 위의 개나리반을 비롯하여 원아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보다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고 모두를 배려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어린이들의 활동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보다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고 아주 많은 배려를 하는 환경 만들기를 목표로,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이 커지고 활동의 폭이 넓어지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3) 생활면 ... 기본적인 생활·식습관을 몸에 익힌다. 튼튼한 몸 만들기를 통해 건강에 대한 관심을 기른다. (양케이트 No.8 ~12)

유치원에서는 ‘자기가 먼저 인사하기’, ‘옷 갈아입기, 정돈, 배설 등의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 ‘식사 예절을 지키고 편식을 없애기’, ‘건강하고 튼튼한 몸 만들기’ 등, 생활면에서 좋은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각 가정과 연대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간 실시되는 리듬 운동이나 체조 교실, 야외 놀이, 넓은 운동장을 사용한 운동 등, 튼튼한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보다 충실한 지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듬 운동에서는 하나 하나의 움직임의 의미를 재확인하며 지도해 가고자 합니다.

유치원에서는 친구, 선생님, 어른에게 자신이 먼저 인사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자신이 먼저 인사하기’에 대한 평가는 작년보다 10%이상 좋은 평가를 받아, 매일매일 하는 지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정과의 연대를 통해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4) 인권면 … 자존감을 높이고 사람을 대하는 힘을 기른다 (양케이트 No.13 ~15)

‘자존감을 높이고 사람을 대하는 힘을 기른다’에 대한 항목에서는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갖기’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이 한 명 한 명을 잘 이해하고, 아이들의 장점을 이끌어 내는’ 것을 염두에 두며 보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급생과의 활동이나 그룹 활동은 여러 명과 함께하면서 다른 나이의 아이들과 교류하는 장입니다. 나이가 더 많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을 도와주거나, 어린 아이들이 형이나 언니들을 거울 삼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과 배려, 대인관계의 힘을 기르기 위해, 그 중요성을 인식하며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을 연구해 가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어, 일본어, 영어권의 문화를 알아가면서, 다문화 속에서 공생하는 사람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 지역 제휴 … 지역을 향해 열린 유치원만들기 (양케이트 No.16 ~18)

교육 방침, 활동 보고서나 행사 안내 등, 유치원으로부터의 정보 발신에 대해 ‘교육 방침은 연도 초의 유인물’로, ‘행사 안내는 통신과 알림장’, ‘활동 보고는 행사별로 통신과 블로그’를 이용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홈페이지의 충실과 블로그 게재 회수 증가를 위해 노력하여 금년도부터는 공유노트나 우사기노트 등 다양한 정보수단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양케이트의 결과로 볼 때 아직 연구와 검토를 거듭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자 여러분의 의견과 아이디어도 참고하면서 보다 나은 형태를 모색해 가고자 합니다.

지역적으로는 스미요시구의 ‘스미짱육아넷’ 등을 통해 미취원아 교실인 ‘병아리’가 개최된다는 것을 알리면서 육아와 보육의 지원 활동이 정착되었습니다. 또한 스미요시구의 자원봉사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꽃의 모종을 받거나, 1년에 2번 구연동화를 들려 주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내년도도 지역과의 제휴를 보육 활동의 일환으로 삼아, 유치원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다시 새로운 일년을 향하여, 교원 일동은 한층 더 연구와 노력을 쌓아 가겠습니다.

모쪼록 보호자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